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검증

안 하 안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소재 8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을 거쳐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단절/거절 도식 → 정서적 과민반응 → 부정적 기분, 단절/거절 도식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즉, 정서적 과민반응은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부정적 기분,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정서적 단절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정서적 단절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단절 및 거절 도식, 정서적 과민반응, 정서적 단절,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

[†] 교신저자: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02-2123-6171, E-mail: seox0004@yonsei.ac.kr

2009년 전국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80.4%의 신입생이 외로움, 불안, 우울/무기력, 분노, 자살충동 중 한 개 이상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남향자, 2010). 이 중 72.42%는 외로움, 65.60%는 불안, 62%는 우울/무기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15.36%는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자살을 생각하게 한 구체적인 문제 영역으로는 학업문제, 가정문제, 대인관계문제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기분(negative mood)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심리도식치료이론과 애착이론을 토대로, 대학생의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심리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이론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Young(1990)은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치료, 애착이론, 대상관계이론, 구성주의 및 정신분석치료를 통합하여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를 주창하였는데, 여러 이론에서의 도식 개념을 바탕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을 개념화하였다. 도식(schema)은 자기 개념의 핵심을 구성하는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고(Beck, 1967; Segal, 1988),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평가로서 유기, 학대, 무시, 거절 등 아동기 발달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기억, 정서, 신체감각, 인지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Young(1990)은 ‘타인과의 안전 애착, 자율성·

유능감·정체감, 타당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할 자유, 자발성과 유희, 현실적 한계 및 자기 통제’를 핵심적인 정서욕구(core emotional need)로 가정하고, 이러한 욕구들이 아동기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초기 부적응 도식은 생애 초기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일생 동안 정교화되며, 한 개인의 생각, 느낌,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험적인 연구들에서도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기 부적응 도식은 우울(조성호, 2002; Glaser, Campbell, Calhoun, Bates, & Petrocelli, 2002; Harris & Curtin, 2002; Petrocelli, Glaser, Calhoun, & Campbell, 2001a; Schmidt, Joiner, Young, & Telch, 1995; Shah & Waller, 2000; Stopa, Thorne, Waters, & Preston, 2001; Welburn, Coristine, Dagg, Pontefract, & Jordan, 2002), 불안(조성호, 2002; Glaser et al., 2002; Schmidt et al., 1995; Welburn et al., 2002)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Freeman, 1999; Stiles, 2004),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부적응적인 방어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성호, 2001b, 2002),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vev & Jackson, 2004; Petrocelli, Glaser, Calhoun, & Campbell, 2001b).

처음에 16개로 제안되었던 초기 부적응 도식은 이후 18개로 확대되었고, 다시 5개 도식 영역(schema domains)으로 분류되었다(Young et al., 2003): ① 단절 및 거절, ②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③ 손상된 한계, ④ 타인 중심성, ⑤

과잉경계 및 억제. ‘단절 및 거절’(Disconnection and Rejection)은 안정감, 돌봄, 공감, 수용, 존중과 같은 욕구가 자신의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Impaired Autonomy and Performance)은 성취 영역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는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감, 현실적 목표 설정 등에서의 결함과 관련이 있고, ‘타인 중심성’(Other-Directedness)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잉경계 및 억제’(Overvigilance and Inhibition)는 자발성이나 즐거움보다 자기통제와 자기부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 실시된 임상적, 경험적 연구들은 Young(1990)이 제시한 도식과 거의 일치하는 요인 구조를 보고하였고 (Calvete, Estévez, López, & Ruiz, 2005; Hoffart et al., 2005; Lee, Taylor, & Dunn, 1999; Schmidt et al., 1995), 국내에서도 원형과 유사한 요인 구조를 확인한 바 있다(김시연, 서영석, 2008; 임성문, 2005; 조성호, 2001a).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문화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시사한다(조성호, 2001b).

한편, Young, Weinberger와 Beck(2001)은 기본적인 욕구 좌절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 및 거절 관련 도식(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이 가장 강력하고 손상이 큰 도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도식들은 분리되어있고, 냉담하며, 거부적이고, 억제적인 가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Young et al., 2003). 구체적으로, ‘유기/불안정’(Abandonment

/Instability) 도식은 주요 타인과의 연계가 불안정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을 경험했거나, 부모의 방임 또는 일관되지 못한 보살핌을 경험했을 때 발생한다. ‘불신/학대’(Mistrust/Abuse) 도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조종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에 부모나 형제, 또래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형성된다.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ation) 도식은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 싶은 소망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애정이나 돌봄의 부재로 인한 양육 결핍, 경청이나 이해의 부재로 인한 공감 부재,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이나 지도의 부재로 인한 보호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도식은 자신에게 결함이 있고, 천성이 나쁘고 열등하며, 중요한 측면에서 취약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식은 비판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단절 및 거절 도식들은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른 도식에 비해 임상집단(정신병 외래환자, 입원환자)의 성격장애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Nordahl, Holthe, & Haugum, 2005),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lvete et al., 2005; Welburn et al., 2002).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절 및 거절 도식만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비임상집단의 대학생활 적응(John, Mark, & Tracy, 2008), 결혼만족(김시연, 서영석, 2008)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의해 활성화되고 다시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적응 도식은 이전의 외상 경험과 유사하게 지각되는 생활 사건에 의해 촉발되고, 인지 왜곡과 자기 패배적인 생활패턴, 부적응적 대처방식 등을 유발해서 결국 자신에게 해로웠던 아동기 상황을 반복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역할을 수행한다(Young et al., 2003). 즉, 부적응 도식에 의해 고통이 유발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 여겨, 결국 부적응 도식이 유지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부적응 도식의 이런 속성을 고려했을 때, 치료자들이 부적응 도식을 수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둘 경우 개입의 효율성 및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더욱이, 부적응 도식에 의해 활성화되어 심리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고 다시 부적응 도식을 영속화시키는 과정 변인의 존재 및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 내담자의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치료의 효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적응 도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적응 도식에 의해 활성화되는 과정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치료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도식치료이론과 애착이론을 토대로,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의해 활성화되고 다시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부적응 도식과 이들 변인 및 심리적 문제 간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심리도식치료이론은 주요 타인과의 정서적 경험을 중시하는 애착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Young et al., 2003). 예를 들어, 애착이론의 주요 개념인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유아와 애착대상 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주의와 정보 처리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부적응 도식의 기원 및 역할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실제로 Young 등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역기능적인 내적 작동모델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특히, 안정감, 돌봄, 공감, 수용, 존중과 관련이 있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은 그 발생 기원 및 영향에 있어서 애착이론에서 가정하는 불안전 애착 형성 과정 및 영향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단절 및 거절 도식들이 일관되지 않은 부모 양육방식과 주요 타인으로부터 애정이나 이해 및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처럼, 불안전 애착 또한 애착대상이 정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형성된다(Shaver & Mikulincer, 2002).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우울 및 불안(Calvete et al., 2005; Welburn et al., 2002), 대인관계문제(김시연, 서영석, 2008)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불안전 애착 역시 우울 및 불안(안하얀, 서영석, 2010; Lopez & Gormley, 2002; Wei, Vogel, Ku, & Zakalik, 2005), 대인관계문제(안하얀, 서영석, 2010; Lopez & Gormley, 2002; Wei et al., 20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불안전 애착패턴은 발생 기원 및 그로 인한 영향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안전 애착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심리 과정변인들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부적응 도식이 일으키는 강렬하고 압도적인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처반응(coping response)은 불안전 애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는 방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부적응 도식에 대한 대처반응인 과잉보상(overcompensation)과 회피(avoidance)는 애착대상이 비일관된 반응을 보이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전 애착전략(과잉활성화 전략, 비활성화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과잉보상을 통해 대처할 경우 사소한 분리에도 상대방을 격렬히 공격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착취에 가까운 정도로 칭찬이나 인정을 요구하며, 결국 상대방이 도망갈 정도로 매달리고 숨 막히게 행동한다(Young et al., 2003). 불안전 애착전략인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 역시 사소한 위협을 과장해서 지각하고, 심리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함으로써 애착대상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며, 애착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노력하는 특징을 보인다(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또한, 회피를 통해 부적응 도식에 대처할 경우 불편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느낌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진솔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한다(Young et al., 2003). 이와 비슷하게, 불안전 애착전략인 비활성화(deactivation) 전략을 사용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부정적인 기억들을 억압하고, 친밀한 관계나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피하며, 다른 사람들과 인지적·정서적·물리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절을 피하려고 한다(Fraley & Shaver, 1997;

Mikulincer & Orbach, 1995; Shaver & Mikulincer, 2002; Woodhouse & Gelso, 2008).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부적응 도식과 불안전 애착은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이 두 가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처방식들 또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관련 도식들이 불안전 애착전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단절 및 거절 도식은 과잉활성화 전략과 비활성화 전략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불안전 애착전략들은 다시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도식에 의해 활성화되는 불안전 애착전략으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채택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은 불안전 애착전략의 한 형태로서, 애착이론에서는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가정한다. ‘정서적 과민반응’(emotional reactivity)은 과잉활성화 전략의 하나로서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인데(Cassidy, 2000; Lopez & Brennan, 2002; Wei et al., 2005),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타인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비활성화 전략의 하나로서 내적 정서 경험을 부인하고 억제하며(Skowron & Friedlander, 1998),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화함으로써 타인이 부재함으로써 야기되는 좌절을 회피하려고 한다(Cassidy, 2000; Lopez & Brennan, 2002; Wei et al., 2005). 이런 정서조절 전략들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감하지 않고 거부적인 타인들 때문에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Cassidy, 2000; Lopez & Brennan, 2000; Shaver & Mikulincer, 2002),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부정적인 기분(우울 및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은 관계 만족을 저하시키고(안하얀, 서영석, 2010; Skowron, 2000; Skowron & Friedlander, 1998; Wei et al., 2005), 부정적인 기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하얀, 서영석, 2010; Skowron & Friedlander, 1998; Wei et al., 2005).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면,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발생기원 등 여러 측면에서 애착이론에서의 불안전 애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응 도식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대처반응(과잉보상, 회피)은 불안전 애착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애착전략(과잉활성화, 비활성화)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부정응 도식들이 불안전 애착전략들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가정하였고, 특히 부

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부정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심리도식치료이론을 토대로 부정응 도식이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전략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관련 부정응 도식들이 과잉활성화 전략인 정서적 과민반응과 비활성화 전략인 정서적 단절을 유발하고,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은 다시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정서적 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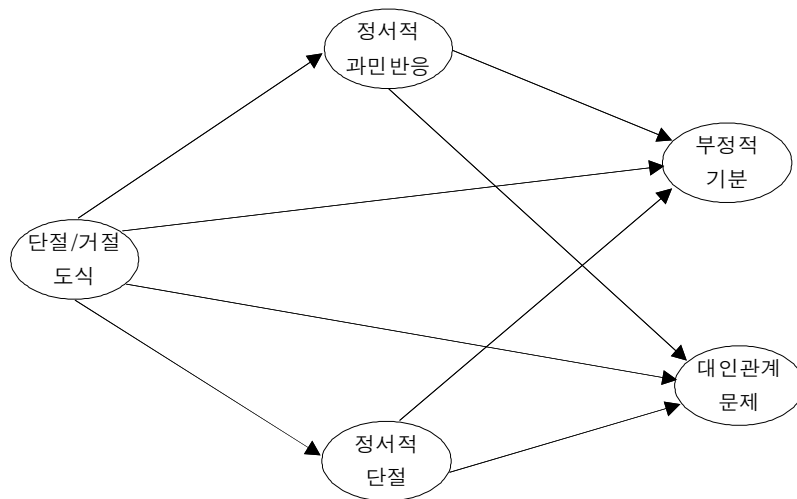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반응과 정서적 단절은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8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25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의 자료를 제외한 401명(남 135, 여 263, 미기재 3)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65세($SD = 2.19$)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163명(40.6%), 4학년 103명(25.7%), 3학년 96명(23.9%), 1학년 33명(8.2%), 미기재 6명(1.6%) 순으로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제외한 설문지의 총 문항 수는 106문항이었으며, 설문에는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 조사는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소정의 상품을 지급받거나 수업에서 추가로 점수를 부여받았다.

측정도구

단절 및 거절 도식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도식들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8)이 제작하고 이미엘(2006)이 변안

한 Young 도식 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5개 문항으로 구성된 Young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YSQ, Young & Brown, 1994)를 요인분석한 후, 각 심리도식에서 5문항씩 선정하여 총 15개 도식, 7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편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4개의 부적응 도식만을 사용하였는데, 각 도식에 해당되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유기/불안정’(예: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 같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불신/학대’(예: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건 시간문제다); ‘정서적 곁핍’(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함/수치심’(예: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해당 도식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도식의 문항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 도식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다(조성호, 2001a). Schmidt 등(1995)의 연구에서 YSQ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96의 범위에 분포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82로 나타났다. 심리적 고통, 자존감,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성격장애 증상 측정치 등과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연과 서영석(200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YSQ-SF를 요인 분석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15개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4개 도식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93, 하위 도식인 유기/불안정은

.85, 불신/학대는 .79, 정서적 결핍은 .91, 결합/수치심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도식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가 .90, 유기/불안정은 .78, 불신/학대는 .78, 정서적 결핍은 .87, 결합/수치심은 .86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측정하기 위해 Skowron과 Friedlander(1998)가 제작하고 조은경(2001)이 번안한 자기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를 사용하였다. DSI는 정서적 과민반응(emotional reactivity), 자기 입장(I position),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 등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과잉활성화, 비활성화)의 지표로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애착 관련 연구들에서도 이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한다(안하얀, 서영석, 2010; Wei et al., 2005). ‘정서적 과민반응’은 환경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나 정서적 불안정성 및 타인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정도 등을 측정하고(예: 사람들은 내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말한다), ‘정서적 단절’은 정서적으로 방어하거나 부인하는 정도 또는 감정이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고립시키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거리를 두는 편이다). 정서적 과민반응은 11문항, 정서적 단절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한다. Skowron과 Friedlander(1998)의 연구에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정서적 단절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일부 문항들에 대해 번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척도 번안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이 원문을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이것을 심리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사용자가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실시하였다. 이후, 원 문항과 역번역된 영어 문항에 대해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사용자인 심리학 학부생 2명이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동일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평균 점수가 4점 이하인 문항들에 대해 연구자들이 다시 검토하여 해당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문항 번안을 완료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정서적 과민반응이 .83-.88, 정서적 단절이 .79-.84로 나타났고(Skowron & Friedlander, 1998; We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과민반응 .83, 정서적 단절 .79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분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을 부정적 기분의 주요 지표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총 9개의 증상을 측정하는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울’은 삶에 대한 희망 상실, 동기 결여, 활력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을 13개 문항으로 측정하며, ‘불안’은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10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다(4점)’의 5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하위척도의 점수 합산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Derogatis(197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우울이 .90, 불안이 .85로 나타났고, 임규혁(1997)의 연구에서는 우울 .86, 불안 .85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모두 .89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홍상황 등(2002)이 제작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 8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차원마다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8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0-.78로 나타났고, 친애와 통제-지배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냉담, 비사회성, 자기희생, 과관여를 ‘친애’ 차원으로, 비주장성, 과순응성, 통제지배, 자기중심성을 ‘통제-지배’ 차원으로 구분하여 2개의 요인

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61-.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가 .91, 각 하위차원의 내적일치도는 .67-.85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구인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을 사용해서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추정할 모수가 많아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변인을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인을 구인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변인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인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Russell 등(1998)이 제안한 항목 묶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변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을 항목 합산하여 각 변인마다 3개의 지표를 생성하였다. 요인부하량에 따른 항목 합산을 위해, 먼저 각 변인에 대해 요인의 수를 1로 지정한 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묶는 방식으로 각 지표에 속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평균이 같도록 만들었다. Amos 7.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χ^2 값뿐만 아니라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모형 검증

모형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짓고(Curran, West, & Finch, 1996),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67, N = 401) = 217.17, p < .001$; CFI = .95; TLI = .93; RMSEA = .075. 또한 측정변인들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단절 및 거절 도식은 .64-.81, 정서적 과민반응은 .74-.82, 정서적 단절은 .69-.83, 부정적 기분은 .87-.95, 대인관계문제는 .81-.95로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정서적 결핍	-													
2. 유기/불안정	.39	-												
3. 불신/학대	.38	.46	-											
4. 결함/수치심	.60	.50	.56	-										
5. 정서적 과민반응1	.04	.31	.32	.22	-									
6. 정서적 과민반응2	.06	.41	.33	.23	.62	-								
7. 정서적 과민반응3	.13	.47	.33	.30	.60	.66	-							
8. 정서적 단절1	.31	.36	.46	.44	.38	.38	.33	-						
9. 정서적 단절2	.48	.45	.52	.54	.28	.31	.26	.59	-					
10. 정서적 단절3	.32	.38	.44	.39	.25	.31	.33	.49	.58	-				
11. 우울	.27	.39	.36	.40	.30	.36	.42	.32	.37	.34	-			
12. 불안	.19	.37	.33	.33	.30	.35	.43	.27	.33	.37	.83	-		
13. 대인관계문제1	.37	.49	.39	.49	.39	.48	.50	.46	.48	.40	.49	.44	-	
14. 대인관계문제2	.37	.39	.42	.47	.28	.33	.33	.42	.45	.38	.43	.37	.77	-
M	8.78	12.59	12.26	9.39	11.28	16.74	14.71	12.98	10.52	10.17	14.88	9.13	61.12	35.13
SD	4.55	5.12	4.94	4.80	3.18	3.78	3.97	3.71	3.64	3.81	10.55	8.14	13.30	8.97
왜도	1.57	.66	.70	1.43	-.14	-.26	.14	.26	.46	.42	.74	1.13	.09	.28
첨도	2.63	.05	.24	2.02	-.50	-.45	-.35	-.14	.14	-.08	-.36	.63	-.28	.06

주. N = 401. 상관 계수 $|r| \geq .13, p < .01$.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14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69, N = 401) = 232.83, p < .001; CFI = .94; TLI = .93; RMSEA = .077$. 단절 및 거절 도식, 정서적 과민반응, 정서적 단절은 부정적 기분 변량의 37.6%, 대인관계문제 변량의 5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직접경로 계수들을 살펴보면(그림 2),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정서적 과민반응, 정서적 단절, 부정적 기분, 대인

관계문제에 대해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과민반응은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면, 정서적 단절은 두 종속변인들에 대해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우선,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을 거쳐 부정적 기분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절/거절 도식 → 정서적 과민반응 →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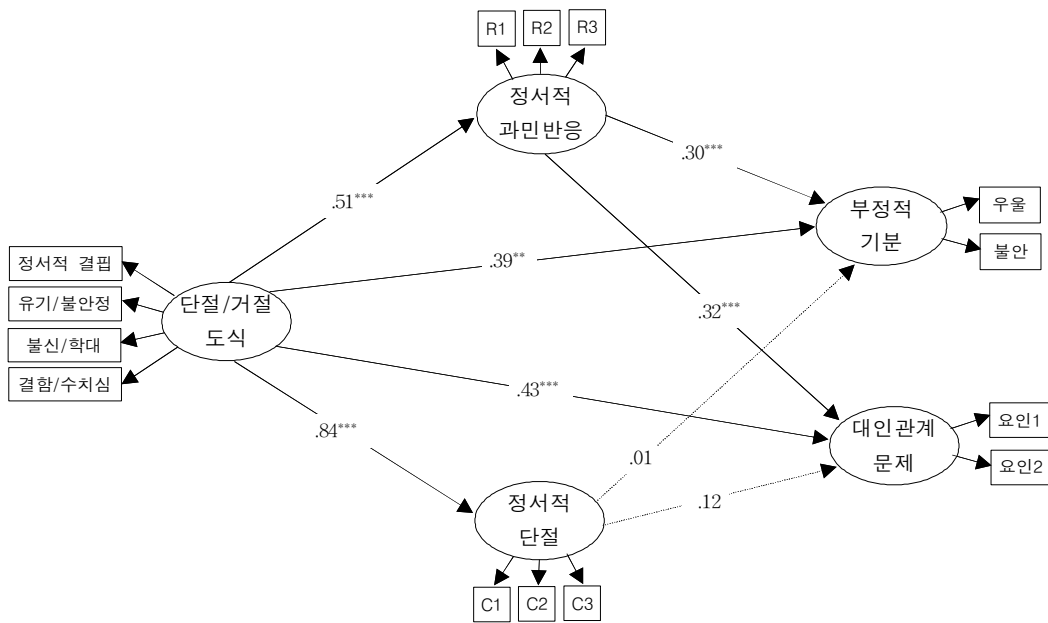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경로계수

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결함/수치심 = 단절/거절 도식 측정변인; R1-R3 = 정서적 과민반응 측정변인; C1-C3 = 정서적 단절 측정변인; 우울, 불안 = 부정적 기분 측정변인; 요인 1, 요인 2 = 대인관계문제 측정변인.

** $p < .01$. *** $p < .001$.

표 2. 매개효과 검증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obel Test(z)
단절/거절 도식	→ 정서적 과민반응	.51***	-	.51***	-
	→ 정서적 단절	.84***	-	.84***	-
	→ 부정적 기분	.39**	.16	.55**	-
	→ 대인관계문제	.43***	.26	.69***	-
정서적 과민반응	→ 부정적 기분	.32***	-	.32***	-
	→ 대인관계문제	.30***	-	.30***	-
정서적 단절	→ 부정적 기분	.01	-	.01	-
	→ 대인관계문제	.12	-	.12	-
단절/거절 도식	→ 정서적 과민반응 → 부정적 기분		.15***		4.24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16***		4.82

주. 효과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정적 기분). 부정적 기분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고려했을 때,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부정적 기분 간 관계를 정서적 과민반응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절/거절 도식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서적 과민반응은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심리도식치료

이론과 애착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매개한다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 및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서적 과민반응의 매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네 번째 연구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부적응 도식으로 인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지각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개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Young(1990)의 심리도식치료이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기분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Calvete et al., 2005; Nordahl et al., 2005; Welburn et al., 2002),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John et al., 2008; Stiles, 2004)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도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단절하는 성향 또한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발생 기원 및 영향이 불안전 애착의 형성 과정 및 영향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안전 애착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정서적 과민반응, 정서적 단절)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한다.

한편, 정서적 과민반응은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적 단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과민반응 뿐만 아니라 정서적 단절 또한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안하얀, 서영석, 2010; Wei et al.,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듯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통계적 허구 때문인지, 표집의 오류로 인한 우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가지 가능성은 성인애착 차원(불안, 회피)을 외생변인으로 채택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부적응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외생변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적 단절과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정서적 단절이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정서적 과민반응보다는 정서적 단절과 더 큰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정서적 과민반응보다는 정서적 단절의 효과를 더 감소시켰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변인들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적 단절을 활성화시키지만 정서적 단절은 부정적 정서 및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단절의 억제효과를 시사한다. 즉,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정적 정서 및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단절이 차단 또는 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단절의 억제효과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MacKinnon, Krull과 Lockwood (2000)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독립변인(단절 및 거절 도식)이 종속변인(부정적 정서,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을 설정할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러나 매개변인을 설정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가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MacKinnon et al., 2000). 따라서 정서적 단절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직접효과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와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직접효과는 정서적 단절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에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적 정서: $\beta = .56, p < .001 \rightarrow \beta = .47, p < .001$, 대인관계문제: $\beta = .72, p < .001 \rightarrow \beta = .53, p < .001$). 이는 정서적 단절의 억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서적 과민반응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적응 도식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부정적 기분 및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직접 경로계수가 정서적 과민반응에서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직접 경로계수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담자가 지닌 부

적응 도식의 내용과 그 영향을 자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에서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부적응 도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부적응 도식과 관련된 아동기 기억, 정서, 신체감각, 인지, 대처방식 등을 자각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의 내용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고 결국 부적응 도식에 대한 자유의지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다(Young et al., 2003).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던 초기 발달 과정을 공감하되, 부적응 도식의 합리성과 기능성을 현실적으로 검증하도록 조력하는 공감적 직면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적 과민반응이라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부정적 기분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적응 도식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정서 반응 또한 치료 과정의 주요 과제로 포함시켜 적절한 개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과민반응이 내담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기분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과민반응이 상담자 및 상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즉시적으로 반영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부적응적 정서 반응이 지니고 있는 역기능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 즉, 상담자는 지금-여기에 초점을 두고 상담 회기 중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내담자가 사용하는 부적응적 정서 반응의 유용성과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상담자의 적절한 치료적 거리(therapeutic distance) 유지와 제한된 재양육(limited reparenting) 제공이 중요하다. 즉, 상담 초기에는 안정감, 보살핌, 자기표현과 같은 충족되지 않은 아동기 욕구를 수용하면서 내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내담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Katherine & Brent, 2009; Young et al., 2003).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에서도 내담자가 원하던 보살핌과 양육을 얻을 수 있다는 새로운 학습 경험이 일어날 수 있고,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은 상담 이외의 일상적인 관계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3개 지역 8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통해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교육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파괴적이고 손상이 큰 것으로 보고된 단절 및 거절 도식만을 예측변인으로 채택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부적응 도식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정서조절 전략 및 심리적 부적응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금명자, 남향자 (2010).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규혁 (1997).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심리측정학적 재조명: 확인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1(1), 157-189.
- 임성문 (2005). 초기 부적응 도식과 만성적 지연 행동 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경로모형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1a).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성호 (2001b).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39-54.
-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75-788.
- 조은경 (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assidy, J.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s: A development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11-131.
- Calvete, E., Estévez, A., López, E., & Ruiz, P. (2005). The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Structure and relationship with automatic thoughts and symptoms of affective disorde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 90-9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CL-90*. Baltimore: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Clinical Psychometrics Unit.
- Fraley,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80-1091.
- Freeman, N. (1999).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59*, 9B.
- Glaser, B. A., Campbell, L. F., Calhoun, G. B., Bates, J. M., & Petrocelli, J. V. (2002). The early maladaptive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A construct validity stud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ling and Development, 35*, 2 - 13.
- Harris, A. E., & Curtin, L. (2002). Parental perception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405-416.
- Hoffart, A., Sexton, H., Hedley, L. M., Wang, C. E., Holthe, H., Haugum, J. A., Nordahl, H. M., Hovland, O. J., & Holte, A. (2005). The structure of maladaptive schema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factor-derived sca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627-644.
- John, J. C., Mark, B., & Tracy, P.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early maladaptive schemas, psychological mindedness and self-reported college adjustment.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 105-118.
- Jovev, M., & Jackson, H. J.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personality disorder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 467-478.
- Katherine, D. D., & Brent, M. (2009). Experienced therapists' approach to psychotherapy for adults with attachment avoidance or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56, 549-563.
- Lee, C. W., Taylor, F., & Dunn, J. (1999). Factor structures of the Schema Questionnaire in a large 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421-451.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 173-181.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143-165).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17-925.
- Nordahl, H. M., Holthe, H., & Haugum, J. A. (2005).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patients with or without personality disorders: Does schema modification predict symptomatic relief?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 142-149.
- Petrocelli, J. V., Glaser, B. A., Calhoun, G. B., & Campbell, L. F. (2001a). Cognitive schemas as mediating variabl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efeating personality and dep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183-191.
- Petrocelli, J. V., Glaser, B. A., Calhoun, G. B., & Campbell, L. F. (2001b). Early maladaptive schemas of personality disorder subtyp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546-559.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95-321.
- Segal, Z.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147-162.
- Shah, R., & Waller, G. (2000). Parental styl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role of core belief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8, 19 - 25.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kowron, E. A. (2000).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7, 229-237.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 - 246.
- Stiles, O. E.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imacy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Stopa, L., Thorne, P., Waters, A., & Preston, J. (2001). Are the short and long forms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comparable and how well does each version predict psychopathology scor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5, 253-272.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 Welburn, K., Coristine, M., Dagg, P., Pontefract, A., & Jordan, S. (2002). The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Factor analysis and relationship between schemas and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519-530.
- Woodhouse, S. S., & Gelso, C. J. (2008). Volunteer client adult attachment, memory for in-session emotion, and mood awareness: An affect 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197-208.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 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Inc.
- Young, J. E. (1998).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1st ed.). New York: Cognitive Therapy Center.
- Young, J. E., & Brown, G. (1994). Young Schema Questionnaire. In J. E. Young (Ed.),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2nd ed., pp.63-76).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Young, J. E., Weinberger, A. D., & Beck, A. T. (2001).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In D. Barlow (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3rd ed., pp.264-308). New York: Guilford Press.

1차원고접수 : 2010.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0. 09. 14.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8.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s,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Ha Yan An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On the basis of Jeffrey E. Young's schema therapy, attachment theory and related empirical findings, the present study examined a theoretical model in which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mediated the links between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s and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from 401 college students at 8 universities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produced a good fit to the data. Also, the link between maladaptive schemas and negative mood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al reactivity. The link between maladaptive schemas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also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al reactivity. Unlike expectations, however, emotional cutoff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negative mood or interpersonal problem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s, emotional reactivity, emotional cutoff, negative mood, interpersonal problems*